

『침묵의 시간』에 나타난 서사적 장치로서의 질병

조민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조민현(2020), 『침묵의 시간』에 나타난 서사적 장치로서의 질병,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1(2), 87-106.

초록 『침묵의 시간』은 1950년대의 사실주의 소설 전통에서 벗어나 언어적 실험과 분절적 방식의 서술 기법으로 새로운 소설 미학을 보여준 작품이다. 그런데도, 이 작품은 형식적인 개혁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광의의 차원에서 인간과 사회에 관해 심도 있게 성찰한다. 이 소설은 이전 시대의 사회 소설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모습이 실존주의적 전망 아래 해석된다. 또한, 프랑코 시대에 세워놓은 스페인적 신화를 해체하려는 탈신화적 성격 역시 두드러진다. 이렇게 『침묵의 시간』은 실험적인 성격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논의되어왔다. 본 연구는 이렇게 다층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 소설의 서사적 장치로서 질병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질병은 단지 의학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은유로 암시된 사회적 현상과 인간 실존과의 관련성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작품에는 여러 질병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인간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토대로 한 암 연구가 이야기 전개 of 기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주인공은 이 연구에서 좌절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현상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이성의 병'과 '스페인의 병'으로 연결되며, 무기력 상태에 빠진 주인공의 모습은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름한 절망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본 연구는 『침묵의 시간』에 제시된 병적인 요소가 중요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작품이 표방하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문제적 인식과 긴밀히 연결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함을 살펴보았다.

핵심어 마르틴 산토스, 『침묵의 시간』, 질병, 서사적 장치

I. 서론

『침묵의 시간』은 스페인 소설사에서 언어적 실험과 분절적 방식의 서술 기법으로 새로운 소설 미학을 보여준 작품이다. 곤살로 소베하노가 이 소설을 1960년대 이후 ‘구조소설’의 기원 또는 전형으로 보며 작품의 새로움이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Sobejano 1975, 546)고 한 것처럼, 이 소설은 사실주의 경향의 이전 시대 문학을 극복하고 언어와 서술 구조 자체에서 유래하는 의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형식적 개혁이 두드러지고 그로부터 파생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이 작품의 가치를 구하지만, 소설에 나타난 사회 비판적인 요소 역시 여전히 유효성이 있다. 힐 까사도는 마르틴 산토스가 기존의 사회 소설 작가들과 다른 면이 많지만, 계속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다룬다(Gil Casado 1975, 471)고 보고, 켈마 로버츠는 이 작품이 갖는 실존적인 성격에 좀 더 주안점을 둔다.¹⁾ 이 밖에 스테이시 돌진은 프랑코 시대에 세워놓은 ‘영원한 스페인’을 극복하려는 이 소설의 탈신화적인 성격을 강조한다.²⁾

이렇게 『침묵의 시간』은 실험적인 성격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논의되어왔다. 본 연구는 이렇게 인간과 사회 문제에 대한 다층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 소설의 서사적 장치로서 질병이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질병은 단지 의학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것의 은유로 암시된 사회적 현상과 인간 실존과의 관련성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작품에는 여러 질병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인간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토대로 한 암 연구가 이야기 전개의 기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주인공은 이 연구에서 좌절하는데, 그것은 사회적 현상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이성의 병’과 ‘스페인의 병’으로 연결되며, 무기력 상태에 빠진 주인공의 모습은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1) Gemma Roberts(1978), “El fracaso”, *Temas existenciales en la novela española de postguerra*, Madrid: Gredos, pp. 129-203 참고.

2) Stacey L. Dolgin(1991), *La novela desmitificadora española (1961-1982)*, Barcelona: Anthropos 참고.

이르는 병'이라고 이름한 절망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이 작품은 형식적 개혁의 측면과 더불어 질병적인 요소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새롭게 드러내었다. 이러한 면을 부각하는 데 마르틴 산토스가 의학을 공부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일했던 경험이 크게 작용하였다.³⁾ 그의 색다른 이력은 당대의 작가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고, 그만큼 현실 인식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었다. 이렇듯 본 연구는 소재로서의 질병이 작품이 표방하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문제적 인식과 긴밀히 연결되는 서사적인 장치로 기능함을 탐색해볼 것이다.

II. 소재로서의 질병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로서 일한 경험을 가진 작가답게 마르틴 산토스는 작품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질병과 의학적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작품에는 주인공 공 빼드로와 더불어 도리따, 아마도르, 무에까스, 마피아스 가족이 소개되는데, 마피아스로 대표되는 상류층, 중류층의 도리따와 아마도르, 판자촌에 거주하는 하류층 무에까스 등으로 스페인의 여러 사회 계층을 망라한다. 그런데, 이 가족들을 살펴볼 때 그 구성원 중 누군가는 어떤 병을 겪은 것으로 나온다.

작품의 초반에 도리따의 할머니는 화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남편에 관해 이야기한다. 남편이 젊었을 때 군인으로 필리핀에 갔는데, 그곳에서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위생에 소홀해서 매독에 걸려 다시 스페인에 돌아왔을 때는 생식 능력을 상실했다고 한다. 한편, 빼드로의 조수로 일하는 아마도르의 부인은 “아이 없는 복부”(185)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불임임을 암시한다. 무에까스는

3) 루이스 마르틴 산토스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마드리드에 머물렀고 1947년에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1949년까지 고등과학연구원(CSIC)에서 외과 의사 수련을 받았는데, 이 시기의 경험이 『침묵의 시간』을 집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다(박채연 2005b, 346).

4) Luis Martín Santos(2001), *Tiempo de silencio*, Barcelona: Seix Barral, 185. 이후 이 텍스트의 인용 시 괄호 안에 쪽번호만 적는다.

근육의 운동장애로 턱장애를 일으키는 무도병에 걸렸었다. 찡그린 얼굴을 의미하는 무에까스(Muccas)라는 그의 별명 역시 이 병에서 기인한다(237). 더불어 그는 폐병 등 여러 질병에 걸려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빼드로의 친구인 마피아스의 할머니와 이모 돌로레스는 유방암에 걸린 것으로 나온다. 빼드로를 심문하는 경찰의 어머니도 암으로 죽었다고 한다. 또 다른 경찰인 시밀리야노는 장이 꼬이는 질환이 있다. 이렇게 작품 속에 제시되는 인물들이 다양한 병을 겪었다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누구도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질병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먼저 환경적인 요인이다. 무에까스가 걸린 병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과 관련된다. 그러한 병은 “쓰레기, 찌꺼기, 동냥, 강연 후에 주어지는 음식, 잡동사니, 빈 통조림 깡통 등과 같이 도시에서 버려지는 것만으로 살아가는”(67-68)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과 관련을 맺는다. 화자는 같은 맥락에서 “결핵, 나력, 음식 중독, 객혈, 위경련 등 굶주림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68)을 나열한다. 도리파의 할아버지가 걸린 매독 역시 필리핀에서 타갈로그족 여인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나온다. 한편, 무지와 비이성의 희생양이 된 플로리파의 경우도 떠올려볼 수 있다. 마드리드 외곽의 판자촌에 살면서 폭군 같은 아버지에 의해 임신을 하게 된 그녀는 유산하는데, 돌팔이 의사와 아버지가 미신적인 방법으로 비이성적인 치료를 한 결과 과다 출혈로 죽게 된다. 이러한 모습 역시 열악한 환경 조건에 의한 질병과 관련된다.

반면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질병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면도 나온다. 마피아스 가족이 걸리는 암은 “그 집안 여자들은 모두 그 병으로 죽는다”(163)라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유전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밖에도 작품에는 다양한 병명들이 나온다. 경련, 간지럼증, 두통, 어지럼증(220)과 늑막염, 심막염, 횡장염, 항문 소양증, 복막염, 혈관잡음, 복통, 위열(278-279) 등의 용어들이 제시된다.

이렇게 마르틴 산토스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 전반에 걸쳐 여러 질병을 언급하고 그 발병 요인을 떠올린다.

작품 안에 내재한 질병에 관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주인공 빼드로의 암에 관한 연구는 이야기 전개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49년 가을의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의사이자 서해부에 발병하는 암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서 빼드로가 겪은 며칠 동안의 경험을 기본 열거로 하는 이야기는 암 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험용 쥐가 바닥난 데서 시작된다. 그런데, 그의 조수인 아마도르가 마드리드 변두리의 판자촌에 사는 무에까스가 암을 일으키는 세균에 감염된 쥐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무에까스는 빼드로와 아마도르가 일하는 연구소에서 일리노이산 실험용 쥐를 훔쳐서 딸들의 체온을 이용해 그 쥐들을 번식시키고 다시 연구소에 되팔아 생계를 이어간다. 암이 유전에 의한 것인지 환경적인 조건에서 비롯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를 연구하는 빼드로는 암에 걸린 쥐들을 키우는 딸들의 건강 상태에 관한 관심과 함께 유산한 플로리다의 치료에 개입하면서 이야기가 급박하게 전개된다. 대표적 질병인 암 연구가 서사를 이끄는 기본적인 동력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관심 또는 각 개인이 겪는 질병의 모습이 그것이 발병하는 공간 또는 사회와 관련되면서 그 외연이 확장되는 면을 볼 수 있다.

III. 인간과 사회의 매개로서 질병

1. '인간의 몸'과 도시

전술한 바와 같이 작품의 시작 부분은 암 연구를 위한 실험용 쥐를 구하려는 빼드로와 아마도르가 무에까스의 집을 방문하려는 장면인데, 이어서 그들이 사는 도시(마드리드)에 대한 장황한 묘사가 이어진다. 이때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도시의 이미지는 그곳에 사는 인간 군상과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 사람이 한 도시의 이미지이고 한 도시는 인간과는 반대로 배출하는 내장을 가진 인간의 이미지이다. 한 인간은 자신의 도시

에서 인간으로서의 결정과 그의 존재 이유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존재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수한 난관과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18)

인간과 도시의 상호 관련성은 각각이 안고 있는 문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서 기능함을 의미한다. 가일 솔라노의 언급처럼, 인간의 몸이 도시를 표현하는 은유로서 작용하는 것이다.⁵⁾ 그러기에 화자는 “우리는 도시가 수천 개의 몸으로 나뉜 수천 개의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18)이라고 말하는데, 이후 인간의 몸과 관련되는 도시의 여러 이미지가 나온다. 예를 들어, 빼드로가 밤거리를 거닐며 “호텔 문 앞을 지나갈 때 마치 어떤 거대한 입이 그에게 숨을 내뿔듯 후끈한 열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75)고 묘사되며, 그가 플로리다의 죽음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혔을 때, 그 안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인간의 내장 즉 소화기관의 모습과 연결된다.

복도의 벽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말없는 땅의 정령이 문을 열어줘야만 통과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에 이르면 안내인에게 노란 서류를 보여야 한다. 그 다음 입구에는 계단 모양의 구불구불한 목구멍으로 이어지는데, 그 통로를 통해 그는 잘 씹힌 음식물이 연동 운동의 도움으로 소화되기 시작하는 위치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지금 막 거두어들이는 정보들이 해체되기 시작한다.(203)

빼드로가 교도소 내부로 들어간 후 이어지는 동선이 마치 입에 음식물이 들어온 후 소화되는 과정처럼 그려진 것이다. 그가 마드리드의 빠린시빠 빼오역을 떠날 때 그곳에서 기차가 출발하는 장면 역시 인간의 신체를 형상화했다. “끝이 원통처럼 된 빨간 모자를 쓴 남근 모양의 역무원은 손에 호루라기를 들고 깃발을 흔들어 거대한 기관을 발기시켜서 산에 뚫린 굴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282).

5) Gail Solano(1975), “Las metáforas fisiológicas en *Tiempo de silencio* de Luis Martín Santos”, *Inti: Revista de literatura hispanica*, Vol. 1, No. 2, <https://digitalcommons.providence.edu/inti/vol1/iss2/6>

이처럼, 작가는 인간의 몸과 도시의 모습을 병치하며 상호 관련성을 탐색한다. 이때 인간이 겪는 질병은 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적인 모습과 연결되고, 빼드로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탐색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스페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 과정이 된다.

2. 암 연구의 사회적 함의

빼드로는 암이 발생하는 요인을 유전과 환경에 의한 바이러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탐구한다. “그것이 바이러스라면 백신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전자라면, 유전자는 바로 살아있는 실체인 유기체 조직의 일부이므로 면역시키는 치료제를 만들 수 없어요.”(234)라는 말에서 보듯이 그의 연구는 암의 발병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유전자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시작부터 연구에 필요한 실험용 쥐조차 없는 열악한 연구 환경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하고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다. 현미경으로 암 세포를 발견했지만, 쥐가 없어서 더는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그는 실험실에 걸려 있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라몬 이 까할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독백을 내뱉는다.

그는 이베리아족을 과학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다. 그는 간간하고 확고한 자세로 실험용 쥐가 바닥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 가난한 민족, 가난한 민족. 누구도 다시는 노벨상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고, 다시는 지고한 왕의 미소, 위엄을 갖춘 왕의 모습을 못 볼 것이며, 이 메마른 반도에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과 강물이 넘쳐흐르기를 바라는 현자의 출현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7)

빼드로는 실험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이러한 방식으로 암시하며, 열악한 상황이 초래할 결과를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MNA 세균에 감염된 쥐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우리 연구자가 더 이상 키가 큰 왕에게서 축배, 월계수, 햇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가 그 햇불을 들고 여러 나라 앞을 지나가면서, 자란 뒤 파괴되는 바보 같은 그 세균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민족이 이룬 확실한 위대함을 천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8)

이렇듯 빼드로는 자신의 연구가 갖는 의미가 단지 의학 연구로서의 가치를 넘어 사회·국가적인 함의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실험용 쥐가 바닥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조수인 아마도르가 빼드로에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곳은 무에까스가 사는 마드리드 번두리에 있는 판자촌이다. 비록 그곳이 쥐를 기르기에 빼드로의 연구소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지만, 무에까스는 쥐들을 봉지에 담아 딸들의 목에 걸어 따뜻한 열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육에 성공했다.

실험에 필요한 쥐들을 찾아 나선 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플로리파의 죽음에 연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무에까스는 유산하는 딸을 미신적인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출혈이 심해지자 빼드로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여, 달려간 빼드로가 그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회복 불가능 상태여서 숨을 거두게 된다. 빼드로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무에까스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플로리파를 마음에 두었던 까르뚜초가 그녀의 죽음이 누구 책임인지를 알기 위해 아마도르를 추궁하고 위협하자 그가 의사의 잘못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 결국 빼드로는 교도소에 가게 된다. 잘못이 의사에게 있지 않다는 플로리파 어머니의 증언으로 빼드로는 가까스로 석방되지만, 물의를 일으켰다는 질책을 받고 연구소에서 해고되어 더는 암 연구를 하지 못하고 도시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암을 일으키는 요인을 규명하고 백신을 개발하여 암을 치료하려는 계획에 빼드로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그에게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주지 않았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판자촌에서 기르는 쥐들에 의존해야 하는 비

정상적인 현실로 그를 내모는 것에서 보듯이 실험용 쥐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열악한 연구 환경이다. 다른 하나는 플로리다의 죽음 이후 전개된 이야기에 서 보듯이 이성적 사고와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암 연구를 계획한 빼드로의 좌절은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 합리적 이고 실천적인 이성이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데, 이를 ‘이성의 병’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3. 과학적 탐구의 좌절과 ‘이성의 병’

빼드로를 둘러싸고 전개되던 이야기에서 플로리다와 도리따가 죽는데, 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시(autopsia)가 각각 이루어진다. 먼저, 매장된 플로리따가 다시 꺼내져 부검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그녀의 어머니인 엔까르나의 시선에 의해 그려진다.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의 입에서 ‘부검’이라는 말이 나오자, 그토록 이상한 그리스어가 기독교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 그녀는 절망적으로 그 사법 공탁소의 문 앞에 상복을 입은 채 주저앉아서 쉼 목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울어댔는데, 아무도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다. [...] 그녀는 “아이고, 내 딸아”, “아이고, 내 딸아” 하며 통곡하다가도 가끔씩 화를 내며 “그 애를 또 죽이는구나”라고 반복적으로 중얼댔다.(231)

그런데, 플로리따가 죽은 원인은 과학적 방식의 검시가 아니라, 이 말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도 제대로 몰랐던 엔까르나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다. 화자는 그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무것도 모른다. 지구가 둥근 것도 모른다. 태양이 비록 뜨고 지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모른다.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전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왜 돌이 땅으로 떨어지는지도 모른다. 시계를 볼 줄도 모른다. 정자와 난자가 별개의 세포고 그 둘의 핵이 합쳐진다는 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 그러나 그에게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그런 게 아니야”라고 고집스럽게 반복해서 말했다.(241)

의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엔카르나의 말로 빼드로는 풀려날 수 있었다. 과학적인 지식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우리는 과학적 사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를 떠올려볼 수 있게 된다.

한편, 플로리따가 죽은 원인이 의사에게 있다고 오해한 까르푸초가 복수하기 위해 빼드로의 애인인 도리따를 죽였는데, 그 시신 또한 부검되었다. 그런데, 빼드로는 “무엇을 알고자 했을까? 그토록 많은 부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왜, 왜 시신을 가르는지 알 수 없다.”(278)고 말하며, 그 역시 그러한 과학적 방식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실상 주인공인 빼드로 자신도 이성적·과학적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세르반테스가 걸었을 마드리드의 거리를 빼드로가 걸을 때, 화자는 그의 “병적인 이성주의”(73)에 대해서 말한다.⁶⁾ 이러한 언급은 이후 그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노벨상을 꿈꾸는 엘리트 연구원이자 의사로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말과 행동은 이성적인 사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친구인 마피아스와 마드리드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던 후 술에 취한 채 하숙집에 돌아와서 도리따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를 범한다.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성찰도 없이 자신을 도리따의 남편으로 맞으려는 그녀 가족의 함정에 순진하게 빠진 것이다. 한편, 플로리따의 죽음 이후 그는 계속해서 변명하며 상황을 회피하려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어”(131)라고 변명했으며, 이후 상류층이 모인 강연회가 끝난 후 혼자 떨어져 있는 그에게 말을 건네는 마피아스의 어머니에게 “어젯밤에 수술이 있었어요.”(167)라고 말하며 의학에 종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만 할 뿐 그 수술에서 그가 직면했던 상황에는 눈을 감는다.

나아가 그는 경찰이 자신을 찾는다라는 말에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는 대신 창녀촌으로 숨어들고 그곳에서 결국 체포된다. 이렇듯 애초 이성적이고 지적인 의학도로서 소개된 빼드로는 플로리따의 죽음 이후 오히려 비이성적인 행

6) 이 말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빼드로 자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언급된다.

동으로 일관했다. 화자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렇다. 예전에 배운 적이 없으므로 그가 소파 수술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도시에 응급실이 많으므로 그가 응급 수술을 시도하지 말아야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협회에 가입도 하지 않고 수련도 받지 않은 그가 개입하지 말아야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죽음을 확인한 후에는 의사로서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236)

삐드로를 조사했던 경찰 역시 그를 석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무 바보 같은 것이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푹푹하면 푹푹 할수록 어리석은 짓을 한다니까요. 정말 모를 일이에요”(242).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연구소장이 자신을 해고할 때도 삐드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자세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그가 자신을 심문하는 경찰 앞에서 상황하게 압 연구에 대해 늘어놓는 모습과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삐드로의 모습은 그럴듯한 말과 겉모습의 이면에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실천력이 결여된 당시 지식인들을 나타낸다. 작가는 이러한 면을 좀더 극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당대 지식인을 대표했던 오르테가 이 가세트를 암시하는 장면을 가져온다. 그가 1949년 마드리드 바르셀로 극장에서 행한 강연 장면을 풍자적으로 떠올린 것이다. “형이상학의 위대한 독설가”(152)라고 표현되는 그의 모습은 고야의 그림 <마녀들의 집회>에서 군중 앞에 서서 무언가를 설파하는 위대한 솟 산양을 연상시킨다.

<마녀들의 집회>에서 낮은 여인들에 둘러싸인 거대한 솟 산양은 거만한 몸짓으로 그녀들을 대했다. 곳곳이 세운 그의 머리는 바닥에 있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시선을 그림에 두려는 수많은 관객마저 지배하고 있다.(150)

군중 위에 군림한 모습의 오르테가를 떠올린 것은 그가 스페인의 현실에 깊이 천착하지 못하고 단지 철학적 담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조민현 2005, 258). 스페인의 대표적인 지성인 오르테가에게

게서조차 대중을 지배하는 공허한 담론만을 볼 뿐 무기력한 스페인 사회를 변화시킬 동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빼드로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의 모습을 대변한다.

따라서 고야의 그림 <마녀들의 집회>와 더불어 <이성의 잠은 괴물을 낳는다>는 『침묵의 시간』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있는데, 작품 속에서 “돈나 루이사가 힘들게 일어나는 소리에 검은 고양이바닥으로 뛰어내렸다.”(179)는 묘사는 이 그림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이 장면이 빼드르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마드리드의 뒷골목 창녀촌에 숨어있을 때 나오기에 그의 이성이 깨어있지 않은 모습을 암시한다. 그곳에서 빼드르는 “제대로 호흡도 못 하고 폭 가라앉은 공간에 미동도 없이 있었다. 무기력한 그에게 모든 것(음식, 공기, 사랑, 호흡)은 튜브를 통해 제공되었다.”(181-182)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는 아무런 이성적 사유나 실천적 움직임이 없는 총체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는 결국 고야의 또 다른 그림인 <이성의 병>에서 암시하듯이 이성과 과학적 사유가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분위기를 말해준다.

이러한 ‘이성의 병’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형성된 ‘스페인의 병’은 스페인 사회에 내재한 또 다른 문제적인 요소이다.

4. 스페인의 병

젼마 로버츠는 『침묵의 시간』에서 보여준 스페인의 모습이 정치적 개혁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단계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광범위한 교육적 치료가 필요한 어떤 현실을 마주한다고 말한다(Roberts 1978, 138). 말하자면, 스페인 자체가 치유가 필요한 병든 상태임을 역설한다. 이러한 면은 작품의 시작부터 암시되었다. 빼드르는 조수인 아마도르를 보며 스페인 민족에게 결핍된 요소를 떠올린다.

워낙 바보인데다 반도 사람 특유의 좁은 얼굴을 한 그가, 동물성 단백질 없이 단조롭게 콩으로 만든 음식만 먹는 식습관 때문에 뇌 무게가 줄어든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영양이 결핍된 민족을 위한 단백질. 그 결

핍된 세포 분열에서는 운동 신경 세포가 피질을 향해 나갈 때 구성 요소가 비틀거리거나 죽거나 아니면 수가 줄어들거나, 어찌면 비정상적인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정렬하거나, 필요한 가지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파괴적인 종양의 원인을 밝히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8-9)

한편, 화자는 스페인 민족의 성격을 독일 화가와 이야기하는 빼드로와 마띠아스에게서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두 명의 이베리아 사람들의 피에는 가스실의 흔적은 없지만, 투우의 뿔이 대퇴부를 찢러 들어가는 모래사장의 기억은 있다. 아마 그들의 유전자에는 수 세기 전 종교재판으로 인한 고문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86-87). 이처럼 환경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결정되어 유전처럼 이어져 오는 스페인의 병적인 문제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빼드로는 독백을 내뱉는다.

지금은 말라비틀어지고 쪼이 슨 고원 사람들은 내가 다랑어 말리듯 말려진 것처럼 카스티야의 세찬 바람에 말려져서, 미래라는 것을 이미 삼백오십년 전에 잃어버렸고, 이제 미래는 단지 말리려고 놓은 황소의 몸을 잡아 먹는 쪼이고 소금에 절여 말린 다랑어일 뿐이다.(281)

속이 다 비워진 채 말려진 생선처럼, 자신에 대한 존재적 성찰을 상실한 빼드로의 모습은 또한 스페인 민족의 모습이 된다. 개인을 넘어 국가의 문제를 떠올린 것이다. 따라서 빼드로가 교도소에 갇혔을 때, 감방 안에 켜진 전등을 묘사하며, “불은 영원하다. 낮에도 밤에도 꺼지지 않는다.”(205)라고 말한 것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서의 스페인의 면모를 아이러니하게 말한 것이며, 창녀촌에 숨어들 때 그곳의 모습을 “어두운 세계의 중심인 밤의 딸들이 있는 궁전”(175)으로 묘사하는데, 이 또한 스페인의 화려한 왕궁들을 풍자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스페인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적 인식의 근원에는 “식당 접시에 놓인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생선의 모습”(70)이라는 상징적 장면처럼 변화와 발전을 거부하고 제 자리에 늘 머무르려는 스페인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구체

적인 사회적 상황에 토대를 둔 사회 비판적인 면을 넘어, 역사 속에서 병적으로 형성된 스페인의 문제인 것이다(Roberts 1978, 138).

결국, 빼드로가 암 연구에서 좌절하게 된 배경에는 ‘이성의 병’과 ‘스페인의 병’이라는 병적인 요소가 내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는 더는 내디딜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나긴 침묵 속에 빠져든다. 이러한 상황은 빼드로를 ‘절망’의 상태로 내모는데, 그것은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칭했던 일종의 병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 작품의 제목인 ‘침묵의 시간’과의 관련성을 떠올려볼 수 있게 한다.

IV.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서의 절망과 ‘침묵의 시간’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빼드로는 프린시페 뻬오역에서 시골로 가기 위해 기차에 몸을 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내장이 깨끗하게 꺼내진 채 말려진 다랑어 또는 거세된 채 아무런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플로리따가 죽은 사건 이후 그는 더는 암 연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애인 도리따가 죽은 후에는 삶의 존재 이유마저 상실한다. 구욘은 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그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지적으로 거세된 상태이며, 그 결과 거세가 되어도 아무런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침묵 속에 빠져들었다고 말한다(Gullón 1994, 180).

여기서 우리는 빼드로의 모습을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름한 절망의 상태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는 절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식이 증가할수록 의지가 증가하고 의지가 증가할수록 자기가 증가한다. 아무런 의지도 갖고 있지 아니한 인간은 결코 자기가 아니다. 그러나 의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그만큼 많은 자기 의식을 갖게 된다. [...] 자기가 자기 자신으로 되지 않으면, 자기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절망을 의미한다.(키르케고르 2002, 49-50)

빼드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직시하고 대응하기

보다는 변명하고 회피하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키르케고르의 논의에 비추어보면 그는 의식하지 않으려 했고 그런 만큼 의지가 결여되었으며, 결국 절망의 상태인 자기 상실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빼드로는 절망이라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내가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절망한다.”(285)라고 말한다. 그의 이러한 절망은 플로리따의 죽음 이후 자신을 추적하는 경찰을 피해 창녀촌에 숨어있다가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 보인 포기과 체념과 관련된다.

끔찍한 운명. 체념. 필요한 시간 만큼 오랫동안 꿈쩍 않고 있기. 움직이지 않기. [...] 꿈쩍 않고 있기. 나쁘지 않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 생각을 하겠는가. 그저 조용히 있기. 아무 생각도 안 하기. 조용히 있는 것이 자신의 욕망인 것처럼 하기.(208-209)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체념하는 그는 이내 무기력한 상태로 빠진다.

나는 실패자로서 여기 있기를 원했다. 암 연구를 못 하는 것뿐 아니라 스페인의 평범한 학자로, 스페인산 현미경조차 만지지 못하는 채로,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것은 여기서 혼자 생각하면서, 아니 생각 없이, 그저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가라앉아서, 축 늘어져 있는 것이 때문이다.(212)

이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기(No pensar)’를 반복적으로 내뱉던 그는 경찰의 조사에서도 수동적인 자세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다. 이러한 모습이 그를 결국 절망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골드슈타인은 『유기체의 구조』에서 질병이 기본적으로 유기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에 적절하게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심신 장애 상태로 존재 자체를 위협에 처하게 한다고 했다(González de Pablo 1998, 8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빼드로의 절망은 일종의 질병 상태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플로리따 어머니의 증언으로 석방될 수 있었지만, 이후 애인 도리따의 죽음으로 그는 연구자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서 마

드리드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그곳을 떠난다. 그때 그는 이제 거세당해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소리도 못 지르는 상태에 놓인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마지막 독백을 내뱉는다.

우리는 마취된 시간 속에 있다. 우리는 사물들이 제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간 속에 있다. 폭탄은 굉장한 소리로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아무런 소리가 없는 알파선이나 중양자선, 감마선, 우주 광선 등으로 살상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뭉둥이질보다 더 조용하다. 또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X선으로 거세한다. 이제 나는 완전한 침묵으로, 무엇을 위해서인지? 침묵의 시간이다.(282-283)

작품의 제목인 ‘침묵의 시간’은 침묵의 질병을 대표하는 암을 의미하기도 하고, 독재 체제에 순응하는 지식인들 또는 그들의 침묵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박채연 2005a, 338). 말하자면, 일차적으로 ‘침묵의 시간’이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지속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 발현되는 질병을 의미한다면, 그 연속선상에서 이차적으로는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은 모색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침묵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인공 빼드로는 침묵의 병인 암을 연구하려고 했지만, 이를 위한 아무런 능동적인 몸짓을 보이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에 안주한 채 끌려다녔기에 절망에 빠져 마치 질병에 걸린 상태처럼 침묵의 시간 속으로 빠져든 것이다.

이는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한 반감으로 어떠한 변화도 거부했던 스페인의 ‘미소네이스모(misonéismo)’와 관련이 있다. 이 전통은 스페인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무기력을 낳았고 변화를 위한 동력을 얻지 못한 침묵의 사회를 형성하게 했다. 마르틴 산토스는 스페인 제국 시기에 형성되었던 그러한 분위기를 반추하며, 또다시 옥죄어오던 프랑코 독재 시대의 분위기를 이와 같은 침묵의 시간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질병이라는 장치를 통해 인간과 사회의 속성을 새롭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V. 결론

『침묵의 시간』은 보통 전도유명한 청년 의사가 그를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작품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독서는 마르틴 산토스가 한 인간(빼드로), 한 도시(마드리드), 한 국가(스페인)의 내적인 문제를 상호 연관시키며 들여다보려고 했음을 알게 된다 (Dolgin 1991, 75). 작품 전반에 걸쳐 암시되는 이러한 상호 관련성은 빼드로의 독백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작품 중간에 마드리드의 밤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돌아온 빼드로는 세수로 정신을 차리면서 치유하는 것으로서 비와 물의 이미지를 생각한다. “비, 비, 이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다”(117) 하지만, 이내 스페인은 “비가 오지 않는 나라. 물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자신의 문제와 더불어 치유의 환경을 갖지 못한 국가를 떠올린 것이다.

마르틴 산토스는 이러한 면을 조명하기 위해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는 줄거리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질병의 속성을 사용하였다. 질병에 내포된 함의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작가가 형식적 개혁과 언어적 혁신이라는 ‘거리 두기 효과’⁷⁾로 익숙한 현실을 낯설게 하여 그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려는 것과 연관된다. 이를 위해 작가는 사회, 도시 또는 국가를 인간의 몸에 비유한다. 이때, 인간이 병에 걸리는 이유를 환경적·유전적 요인에서 찾아내어 치유하려고 하듯이 한 도시 또는 국가의 문제가 무엇인지 즉 그 공간을 둘러싼 환경적인 면이나 그 공동체의 근본적인 성격에서 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 마르틴 산토스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질병들, 특히 대표적인 질병으로서 암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문제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성의 병’과 ‘스페인의 병’을 작품 속에 담아내었으며,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한 ‘절망’을 통해 좀처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문

7) 리카르도 구온은 이 작품에서 보이는 언어적 혁신을 통한 거리 두기 효과의 다양한 기법을 제시한다(Gullón 1994, 175-176).

제에 직면한 개인과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장치로서 질병이 갖는 함의를 통해 『침묵의 시간』에 나타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박채연(2005a), 「침묵의 시대를 질타하는 새로운 소설 언어」, 『침묵의 시간』, 책세상, pp. 323-341.
- _____ (2005b), 「작가 연보」, 『침묵의 시간』, 책세상, pp. 343-349.
- _____ (2006), 「『침묵의 시간 *Tiempo de silencio*』에 나타난 ‘스페인의 문제」, 『스페인어문학』, No. 39, pp. 123-140.
- 조민현(2003), 「탈신화 시대의 소설: 스페인 실험 소설에 대한 성격 연구」, 『서어문연구』, No. 29, pp. 403-421.
- _____ (2005), 「고야의 그림을 통해 본 『침묵의 시간 *Tiempo de silencio*』」, 『스페인어문학』, No. 36, pp. 249-266.
- 키르케고르(2002), 『죽음에 이르는 병』, 박환덕 옮김, 범우사.
- Dolgin, Stacey L.(1991), *La novela desmitificadora española (1961-1982)*, Barcelona: Anthropos.
- Fiddian, Robin W., “Reflexiones sobre algunos de los personajes de *Tiempo de silencio*,” file:///C:/Users/DCU/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CO21BONF/reflexiones-sobre-algunos-personajes-de-tiempo-de-silencio.pdf
- Gil Casado, Pablo(1975), *La novela social española*, Barcelona: Seix Barral.
- González de Pablo, Ángel(1998), “El sentido de la enfermedad en la obra de Luis Martín-Santos,” *Asclepio*, Vol. 50, pp. 79-102.
file:///C:/Users/DCU/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410JFB6O/352-352-1-PB.pdf
- Gullón, Ricardo(1994), “Mitos órficos y cáncer social,” *La novela española contemporánea*, Madrid: Alianza, pp. 165-180.
- Lafuente Ferrari, Enrique(1990), “Goya grabador o la búsqueda de un lenguaje universal,” *Goya: Toros y toreros*, Madrid: Ministerio de Cultura, pp. 23-26.
- Martín Santos, Luis(2001), *Tiempo de silencio*, Barcelona: Seix Barral.

- Raffo, Sonia(2011), “Tiempo de silencio: Don Pedro y la política del quietismo,” *Hispanófila*, No. 163, pp. 27-37.
- Roberts, Gemma(1978), “El fracaso,” *Temas existenciales en la novela española de postguerra*, Madrid: Gredos, pp. 129-203.
- Sanz Villanueva(1986), *Historia de la novela social española(1942-75) II*, Madrid: Alhambra.
- Sobejano, Gonzalo(1975), *Novela española de nuestro tiempo*, Madrid: Prensa española.
- _____(1979), “Ante la novela de los años setenta,” *Ínsula*, 396-397, p. 22.
- Solano, Gail(1975), “Las metáforas fisiológicas en *Tiempo de silencio* de Luis Martín Santos,” *Inti: Revista de literatura hispánicas*, Vol. 1, No. 2, <https://digitalcommons.providence.edu/inti/vol1/iss2/6>

조민현

대구가톨릭대학교
 minhyunc@cu.ac.kr

논문투고일: 2020년 7월 26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7일

Disease as a Narrative Device in *Time of Silence*

Min-Hyun Cho

Daegu Catholic University

Cho, Min-Hyun(2020), "Disease as a Narrative Device in *Time of Silence*",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1(2), 87-106.

Abstract *Time of Silence* is a work which presents a new novelistic aesthetics through verbal experiments and segmented narrative techniques, breaking away from the dominant realist tradition of novels in the 1950s. Nevertheless, this work does not merely focus on introducing aesthetics changes, but it also offers a deep reflection of human beings and their society at a broader level. Although this novel is different from the social novels of previous times, it still contains similar social critical elements, and the figure of the main character is built up under an eminently existentialist perspective.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demythologizing elements contributing to the deconstruction of the Spanish national narrative established during the Francoist era is also remarkable. In this context, *Time of Silence* has been understood in various ways apart from its experimental dimens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usage of disease as the narrative device which enables multi-layered interpretations. In this novel, disease encompasses not only physical disturbances, but also social and existentialist phenomena related to human existence which are implied metaphorically. In fact, various diseases appear in this work and carry a great weight in the narrative. A good example of this is the employment of cancer research as a basic driving force in the development of the narrative, as it is useful to show the particular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The main character of the novel is deeply frustrated with his study on the effect of cancerous cells, which leads him to the "disease of reason" and "Spain's disease", metaphorical expressions for social phenomena and also for the portrayal of the main character in a state of lethargy. All this reminds us of the despair that Kierkegaard expressed in "Sickness Unto Death". In this wa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athological factors presented in *Time of Silence* function as narrative devices and how they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problematic perceptions of individuals and society which this work tries to present.

Key words Martín Santos, *Time of Silence*, Disease, Narrative Device